



- Cover Story
- IDI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3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Contents

IDI Interview

연구/원/소/식



3월 대화의 시간
3월 "대화의 시간"은 생생한 현장 답사를 통해 현안문제에 대한 깊은 ...

인/천/나/들/이



낭만과 추억이 깃든 소래포구
소래 포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어항으로 서 연안부두와 함께 ...



부평풍물대축제 우수홍 기획단장과의 인터뷰
인천의 축제를 대표하는 부평풍물대축제의 탄생과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이어져 ...

시/정/연/구



인천광역시 고객만족행정 추진 방안
아직도 우리의 지방행정 은 외부 변화...

도/시/동/향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푸트라자야는 말레이시아 초대 수상인... 아 초대 수상인...

신/간/소/개



세계 대도시의 발전전략 도시지리학 박사 Gilles ANT... ANT...

Beat! Play! Fun!

2007부평풍물대축제



우수홍 부평풍물축제기획단장

Q 인천의 축제를 대표하는 부평풍물대축제의 탄생과,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A 부평풍물대축제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되면서 주민들의 지역 소속감을 고취하고 지역의 일체감을 만들어 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부평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으면서도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풍물'을 선택해 부평의 정체성도 회복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한국의 전통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부평풍물대축제는 주민들 스스로에 의해 잔치 마당이 넓어지고 거기에 외부 풍물패가 결합되는 축제로 해가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Q 이제 10돌을 지난 부평풍물대축제, 앞으로 더욱 발전되고 성숙된 축제가 기대되는데요, 2007부평풍물대축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A '바상! 새로운 10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이 축제로서 가질 수 있는 기본요소들을 발전시키는 작업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10년을 향해 비상하도록 노력하는 축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풍물의 원형을 제대로 도시에서 재현시키고, 재창조하며, 폭넓게 내어 전통문화예술이 가지는 생명력을 현대 도시민들에게 유쾌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기 위해, 2007부평풍물대축제의 주제는 '두레, 도시를 건다'입니다. 선조들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을 현대에서 재현하고 재창조하여 진정한 풍물축제로 만들 것입니다.

Q 부평풍물대축제에서는 한국의 전통만이 아닌 아시아 공연단의 초청공연도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어떤 아시아 공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A 부평풍물대축제는 풍물의 세계화를 위해 일본, 대만, 중국, 아프리카에서 공연단이 방문하여 자국의 전통문화공연을 펼칠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과 함께 즐기면서 한국전통을 재창조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통문화의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옛것에 바탕을 두어 변화시킬 줄 알고, 새것을 만들어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범고창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Q 많은 볼거리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축제, 부평풍물대축제를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2007부평풍물대축제는 축제를 내 손으로 만든다는 자긍심과 참여의식, 주인의식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연문화외에도 풍물 체험, 농경문화촌 느낄 수 있는 '짚'민들기 등의 문화체험, 민속놀이 체험, 도자기 체험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므로 축제를 맘껏 즐길 수 있는 열린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부평풍물대축제에 참여할 인천 시민들과 많은 관광객들에게 행사진행 전반에 관려되어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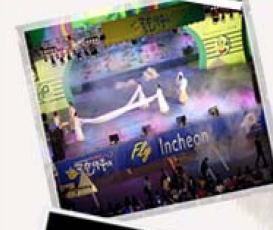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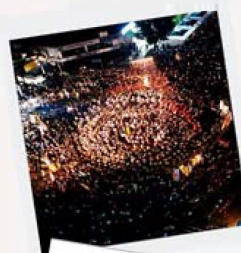
A 부평풍물대축제는 짧은 축제기간에 비해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입니다. 따라서 주차공간확보가 힘듭니다. 빠르고 가벼운 마음으로 축제를 즐기실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를 무대로 발전하는 축제인 만큼 흥겹게 즐기며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시는 길에 자신이 만든 쓰레기도 함께 가져가는 아름답고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07 부평풍물대축제 ★

축제기간 2007.5.30 ~ 6.3

거리축제 2007. 6. 2 ~ 6.3

홈페이지 www.bpf.or.kr



연/구/원/소/식

제43회 정기이사회



2007년 3월 22일

2007년 3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06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안)을 보고하는 정기이사회가 실시되었습니다.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3월 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극동문제연구소 윤대규 소장일원 본원 방문



2007년 3월 13일

2007년 3월 13일 오전 9시 30분 경남대학교 부설 극동문제연구소 윤대규소장과 前 농림수산부 강운태 장관이 인천의 현황을 듣고자 본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소개 및 인천시각종 개발사업 현황시정브리핑 및 경제자유구역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월 대화의 시간



2007년 3월 6일

3월 "대화의 시간"은 생생한 현장 답사를 통해 현안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역사랑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송암미술관과 동양화학 폐석회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단지 예정지, 그리고 현안과제를 안고 있는 용현/학익지구에 대한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인/천/나/들/이

낭만과 추억이 깃든 소래포구

도시환경연구실 김용훈 초빙책임연구원

- Cover Story
- ID인타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시간소개

2007년 3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소래포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어항으로서 연안부두와 함께 인천의 대표적인 어시장이며, 서울 인천 등의 수도권 주민들이 즐겨 찾는 일일 관광지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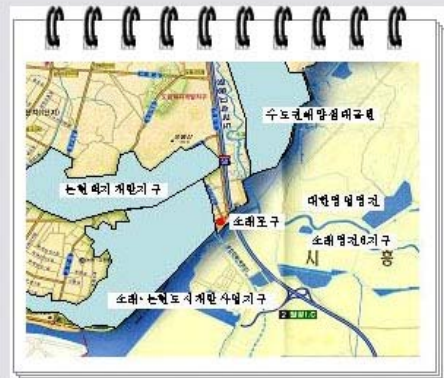
소래포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어항으로서 연안부두와 함께 인천의 대표적인 어시장이며, 서울·인천 등의 수도권 주민들이 즐겨 찾는 일일 관광지라 할 수 있다. 소래포구는 동쪽으로는 현재 사용이 중단된 폐염전지, 서쪽으로는 최근 인천시의 신도시 개발 지역인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지구, 논현택지개발지구, 북쪽으로는 수도권해양생태계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다. 소래포구 주변으로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해양생태공원과 폐염전지는 아이들 학습에 유용한 곳으로 보인다.

소래의 지명유래

소래의 지명유래는 여러가지의 설이 있으나 그 중 하나가 삼국시대 때부터 비롯됐다는 설이다.

신라 무령왕 7년(660), 나-당 연합군 중 당나라 장군 '소정방(蘇定方)'이 백제를 치기 위해 중국 산둥성 래주(萊州)를 출발하여 인천시와 시흥시 사이에 위치한 소래산(299.4m)에 도착하게 되어 '소정방이 왔던 곳'이라는 뜻에서 소래(蘇萊)라 유래되었다고 한다.

반면에 소래란 지명은 주위 산과 냇가에 소나무가 많아 송천(松川)→솔래→소래(蘇來=蘇萊)로 변화했을 것이라고도 한다.



소래포구

소래가 소래포구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무렵으로서 일본제국주의의 대동아 전쟁을 위한 물자 수탈의 수송기지로 이용이 본격화 된 후 부터라고 한다. 특히 경기도 지역의 질 좋은 쌀과 소래 주변에서 생산되는 천일염 등을 수송하기 위해 수인선 철도를 건설하였으며, 수인선을 건설하기 위한 작업인 부와 염부(염전에서 일하는 사람)를 실어 나르면서 잦은 나룻배의 왕래로 인하여 포구가 활성화 되었다고 한다.

현재 소래포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당구산 포구, 운행이 중단된 수인선 협궤열차, 어시장 등의 많은 추억들이 남아 있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당구산(장도) 포대

고종 14년(1877) 일본이 서해안 개항지를 물색하자 고종은 인천을 개항 후보지로 요구할 것에 대비해 어영대장 신정희로 하여금 인천에 화도진과 부평에 연희진을 착공케 하였으며, 소래의 '당구산 포대'는 1879년 7월에 준공하였다.

화도진도를 보면 포대설치 위치가 나타나있으며, 묘도북변포대(5문), 묘도남변포대(5문), 북성곶(북성포) 북변포대(5문), 북성곶남변포대(5문), 제물(포)북변포대(8문), 제물(포)남변포대(5문), 호구(논현)포대(2문), 그리고 당구산(장도)포대(3문)로 총 9대의 포대이다.



그 중 2개의 포대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해 있으며, 호구(논현)포대와 땡구산(장도)포대이다. 옆 40m의 작은 산에 위치해 있었으며, 인천시는 2001년 4월 2일에 땡구산(장도) 포대를 인천광역시문화재자료 제19호로 지정하였다. 현재 땡구산(장도) 포대는 복원된 상태이며 공원으로 이용 중이다.



수인선 협궤열차

수인선(포마열차)은 일본제국주의의 물자수탈을 위해 탄생했으나 반세기 동안 소래를 잉태하는 해안가 서민들에게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였다. 현재는 수인선 협궤열차가 다니던 길이 120m, 너비 2.5m의 소래철교가 남아 있으며, 소래포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다리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소래철교는 포구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하다.



소래철교



소래철교의 철로 자리

1937년 수원역~남인천역(지금의 중구 신흥동)간 수인선(52.8km)을 완공하여, 여주·이천곡창지대에서 생산되는 최고품질의 쌀을 일본으로 보내기 위한 수역선(수원~여수간)과 더불어 협궤열차를 운행하였으며, 일본인 소유인 조선경동철도 주식회사의 사설철도로 운행하였다. 협궤열차란 표준 궤간(철도 레일사이의 간격)1,435m보다 좁은 궤도 위를 운행하는 열차를 말한다. 수인선은 해방 후 60년대까지는 중거리관차가 각각 6량과 화물차 7량을 달고 수인선 15개역을 하루 평균 7차례 운행하였으나 그 후 대중교통의 발달로 인해 1979년 철도청에서는 송도~남인천간 5.9km운행 중단을 시작으로 1992년 7월 소래역~송도역 운행 중단, 수인선 복선화 계획이 구체화된 1994년 9월에는 한양대 안산캠퍼스~송도역 26.9km구간 폐쇄, 1995년 12월 31일 인천~수원간의 구간의 운행이 58년만에 퇴역하였다.

어시장의 활성화



소래포구내 새우젓 시장

소래포구는 1963년 당시 살항민들이 범선(무동력선) 10여척으로 연안에서 새우잡이를 시작으로 포구가 활성화 되었으며, 1972년 새마을 운동 확산에 따른 동력선의 보급으로 물량장, 선착장 등 생산 기반이 확충됨에 따라 싱싱한 생선의 직거래장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어선수가 160여척으로 늘어났고, 이러한 어선들이 덕적도, 이작도, 울도 등 서해 특정해역을 조업 구역으로 하여 선단 조업을 하고 있다.

소래포구에서 판매하는 갯새우나 꽃게 등의 수산물은 일일 조업으로 어획하여 당일 판매하기때문에 싱싱한 생선을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소래포구는 우리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장소이자 사람들의 활력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소래포구로 떠나보는 것은 어떤가? 어시장의 활기찬 소리와 포구로 들어오는 상쾌한 서해바람을 맞으며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Traffic Info 가시는 길

자가용 : 외곽순환도로나 서해고속도로이용 - 인천분기점 월곶IC로 나온 후 바로 보이는 삼거리에서 우회전 - 소래포구

대중교통 : 1. 국철(1호선) 재동포역에서 21번 버스, 부평역에서 38번 버스 탑승 후 소래포구에서 하차
2. 4호선 오이도역에서 1번, 23번 버스를 타고 월곶에서 하차

시/정/연구

인천광역시 고객만족행정 추진 방안

도시경영연구실 이용식 선임연구위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3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아직도 우리의 지방행정은 외부 변화에 따른 요구와 행정서비스 수요자 또는 소비자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들 또는 주민들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자세와 행태는 여전하고 그 효율성도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 정부는 2005년부터 ‘고객과 성과 중심의 행정개혁’이라는 목표를 정해 지방행정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출산해서 ‘고객중심’이란 기치아래 행정서비스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준비하거나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도 이러한 추세와 움직임에 부응, 고객만족 행정 추진전략 및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고, 동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일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혁신분권담당관실의 고객만족행정팀 주도하에 고객만족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계획을 세우고 여러 차원에서 혁신 프로그램을 마련,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 및 행정현실을 바탕으로, 향후 인천광역시가 ‘고객만족’이란 컨셉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지방행정혁신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의 고객만족행정 추진이 현실과 이론 양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여러 측면에서 ‘고객만족행정론’이 갖고 있는 이론적·정책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이 접근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전략을 찬찬히 따져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혁신프로그램을 창안·개발하고 이를 구체적인 현실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고객만족행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우선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능력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고객이 만족할 수 있으려면 일차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이처럼 고객만족행정의 기본 토대가 되는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환경, 행정능력, 리더십,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고객만족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행정에 대해, 특히 민원인과 접점이 넓은 행정 분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유사조사의 대체·활용, 전화전철도 조사, 관련 협의회 및 위원회 활용, 온라인·NGO 등 다양한 의견수렴장치의 활용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객만족행정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리더십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객만족행정 교육 프로그램과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학습모임을 개발, 활성화해야 하며, 다양한 학습·홍보 자료를 발간·활용해야 할 것이다. 고객만족행정의 기반이 되는 조직문화 개선은

역동적 업무 분위기, 창의적 학습 환경, 조직문화 개선 모임, 행정-지역사회 소통 확보 등과 같은 전략적 접근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고객만족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고객만족행정 실천과제를 개발, 추진하고 여러 분야에서 고객만족 실천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 행정서비스 사후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참여 및 평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지역혁신활동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탐색해야 한다. 또 인천시가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여러 주요사업 등을 통해 고객만족행정이 적극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타 다양한 외부 사례를 검토, 인천시 행정에 응용해야 할 것이다.

시/정/연구

지역별 공동주택가격 변화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도시계획·교통연구실 이종현 연구위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3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공동주택가격의 상승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가짐.
 - 구도심 공동주택가격의 동반상승은 노후화된 시가지의 재개발·재건축여건을 강화
 - 서민의 주택구매능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저해
- 공동주택가격의 지역간 격차는 지역간 갈등 형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 공동주택가격의 지역 격차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발생가능한 문제점의 예방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의 공동주택가격 분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장래에 발생하게 될 공동주택가격의 불균등정도를 진단하고, 유사사례 도시들의 사회적 문제점과 대책을 참고하여 정책방향을 제안하는데 있음.

현황 및 장래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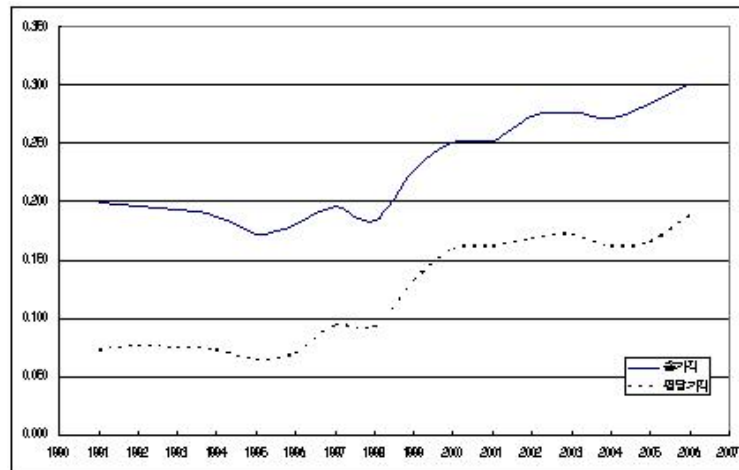
■ 인천 공동주택 가격의 불균등분포 추이

- 2006년 공동주택 가격의 지니계수는 0.303으로 심각하지는 않음
- 1991년의 0.199, 1995년의 0.172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불균등 정도가 증가

<인천지역의 공동주택가격 및 평당단가의 지니계수 변화>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가격	0.199	0.196	0.193	0.188	0.172	0.181	0.196	0.183	0.227	0.251	0.253	0.274	0.277	0.272	0.284	0.303
평당가격	0.072	0.076	0.075	0.073	0.064	0.069	0.094	0.092	0.132	0.159	0.161	0.168	0.172	0.161	0.166	0.189

<인천지역 공동주택 가격 지니계수의 연도별 변화>



■ 인천 공동주택 가격의 불균등분포 전망

- 2020년경에는 현재의 서울과 유사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
 - 지역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주택가격 관리 필요

<공동주택 가격 지니계수의 장래 추정>

구 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총가격	0.172	0.251	0.284	0.334	0.391	0.411
평당단가	0.064	0.159	0.166	0.220	0.287	0.311

정책건의

■ 주택가격 불균등분포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市정책을 수립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지가 및 주택가격의 분포를 분기별, 반기별로 수집하여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불균등 지수 등을 발표하여 정책지표로 활용 : 市 기획관리실에서 수행

■ 주택가격 불균등분포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거환경 관련 정책을 수행

- 가좌중권 등 순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인구밀도를 적정수준이하로 관리
 - 재건축이나 재개발시 용적률 상상을 억제하며, 고층화를 유도
-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고 연계개발을 통하여 대규모단지화를 유도
 - 근린공원이 부족한 생활권은 근린공원 신설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시행
 - 최소주거기준을 상회하는 우수한 환경의 주거환경을 저소득층에게 공급
 - 검증된 저소득층에 한하여 주택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추진
- 저소득층이 집중된 구도심정비는 고밀화되지 않도록 정비
 - 구도심내 도로·근린공원 등 도시기반조성에 대한 정부투자 병행

Contents

해/외/출/장/리/포/트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도시경영연구실 채은경 책임연구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시간소개

2007년 3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푸트라자야는 말레이시아 초대 수상인 '알마흠 투쿠 압둘 라흐만 푸트라 알하즈'의 업적을 기리는 뜻에서 '푸트라자야'로 명명되었다.



푸트라자야는 말레이시아 초대 수상인 '알마흠 투쿠 압둘 라흐만 푸트라 알하즈'의 업적을 기리는 뜻에서 '푸트라자야'로 명명되었다.

말레이시아는 1982년부터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채택하여 우리의 개발경험을 답습하여 우리에게 친근한 나라이다. 자동차, 석유화학 등 중공업에 육성한 정책도 비슷하며, 현재는 사이버자야를 통해 IT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수도인 팔라렐푸르(Kuala Lumpur :KL)를 대체하기 위하여 푸트라자야라는 행정도시를 건설하였다는 점에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말레이어가 공용어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말레이어로 말을 거는 것이 실례일 정도로 영어를 깊숙이 사용하고 있는 점은 동북아 국제 물류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인천에게 일면 의미가 있다.



푸트라 모스크와 정부구역

말레이시아가 말레이계 또는 부미푸트라(61%), 중국인(24%), 인도인(7%), 외국인체류자 및 기타(8%)로 다민족 국가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입헌 군주국임을 아는 사람은 적은 듯하다. 말레이시아는 연방직할지 팔라렐푸르, 라부안 및 푸트라자야와 서말레이시아 11개주, 동말레이시아 2개 주의 13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9개 주에는 각각의 세습통치자(술탄)가 있으며, 9명의 세습 통치자들 가운데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인 양 디 빠르투안 아공(국왕)이 5년마다 선출된다.(9명이 돌아가며 국왕을 하기 때문에, 생전에 국왕을 못하는 술탄도 있다고 한다)



토지이용 계획도

푸트라자야는 말레이시아 초대 수상인 '알마흠 투쿠 압둘 라흐만 푸트라 알하즈(Almarhum Tunku Abdul Rahman Putra Alhai)'의 업적을 기리는 뜻에서 '푸트라자야'로 명명되었다. 말레이시아의 왕족이나 고위 관료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작위나 학위 등이 이름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내가 만났던 City Planning Department의 Director인 Dato' Jebasingan Issace John도 그나마 이름이 짧은 편이라고 한다. (참고로 Dato는 연방 작위로 세습되지 않는다).

어쨌든 덩고도 아름다운 푸트라자야는 1991년 마하티르 수상이 비전 2020이라는 30년 장기계획을 발표하면서 만든 도시이다. 비전 2020을 완수하기에는 팔라렐푸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1993년 6월 이전후보지로 현 푸트라자야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후 1995년 셀랑고르 주정부와 연방 정부 간에 동 지역을 연방정부 관할로 편입시키려는 협정을 체결하고, 2001년에 이전 대상지

두 건물로 한집사기라는 합장을 세웠고, 2005년에 이전 내장 기관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다.

푸트라자야는 알려진 바와 같이 정원 도시(Garden City)와 정보 도시(Intelligent City)를 혼합한 개념으로 설계되었다. 정원 도시의 개념에 따라, 오픈 스페이스는 공원, 습지 등을 포함하여 약 37.6% 정도에 이른다. 이는 도시 면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며, 그 중 절반 이상이 녹지이다.

도시의 주요 골격은 정부 구역 축과 Boulevard축으로 구분된다. 위 그림의 붉은 부분은자 오른쪽 상단이 정부 구역이다. 정부 구역은 환상형 도로를 돌아 정부의 주요 부처들이 기능별로 블록화되어 배치되어 있는 곳이다. 환상형 도로를 따라 내려오면, 왼쪽에 주황색 부분이 모스크(Mosque)이고 푸트라자야를 건설할 때 가장 먼저 지어진 건물이다.(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모스크를 중심으로 건물을 짓는다. 팔라렐푸르 국제공항을 지을 때에도 모스크를 가장 먼저 지었다고 한다.) 블록화된 건물 중 교육부 등이 입주해 있는 곳의 구내 식당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다민족 국가인 지라 말레이 음식외에도 인도 음식 등도 먹을 수 있었다. 히잡(무슬림 여성의 머리두건)을 한 여자 청원 경찰은 우리에게 밖에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뷔페가 있으니 가서 먹으라고 하였다. 이러한 뷔페는 돈이 많은 무슬림들이 자선의 개념으로 여는 것이라고 한다.



Putra Corporation



푸트라 모스크



호수쪽에서 본 재무부 후면

수상청

팔라렐푸르의 유명한 음식점도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는 관광객의 입장을 제한한다. 모스크를 지나면 Boulevard축이 있는데, 사법부, 재무부 등 정부 부처와 푸트라자야 개발을 위한 회사인 Putrajaya Corporation등 중요 기관들이 독립적인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 Boulevard는 파리의 Champs Elysees(상젤리제)거리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되었다고 한다. 위의 건물은 Putrajaya Corporation건물인데, 말레이 전통문양을 컨셉으로 설계되었다. 참고로 말레이시아는 같은 디자인의 건물을 보기 힘들데, 이는 건축 규제를 통해 같은 디자인으로 설계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푸트라자야 Boulevard에는 사람을 보기 힘들다. 그나마 사람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곳이 모스크 앞 광장이다. 그러나 황량한 거리에 우뚝 서있는 이민국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바글거린다는 걸 관광객들은 알까?

자동차가 없다면 방문하기에 참으로 불편한 이곳에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신/간/소/개

인천 맛 기행



인천광역시

예부터 인천은 바다를 접하고 있는 도시로서, 바다와 육지에서 나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요리를 개발되었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인천의 고유 음식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인천에서만 맛 볼 수 있는 향토 전통음식을 널리 소개하기 위해 기획된 단행본. 2009년 “인천방문의 해” 지정과 “인천세계도시엑스포” 개최 등의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로 국내 8228;외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들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도 소개문을 수록하여 국제적인 명품도시 인천을 지향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3월 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첨단정보화도시 사례조사보고서



대한주택공사

운정 신도시를 세계 최고의 U-City로 개발하고자 국외 첨단정보화도시의 개발특성, IT를 비롯한 적용기술 및 계획기법, 첨단 아이템 및 운영시스템 등 개발에서부터 운영 실태에 이르기까지 조사하여 운정 신도시의 개발방향을 점검하고자 시행된 연구의 결과보고서.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핀란드, 덴마크, 독일, 두바이 등의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운정 신도시의 U-City IT 계획안을 구상하고 있다.

세계 대도시의 발전전략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리학 박사 Gilles ANTIER가 저술한 세계 대도시권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요인들을 다루고 있는 저서 ‘Les Stratégies des grandes métropoles’의 번역서. 국내 수도권 발전 및 개발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판되었다. 대도시가 지닌 다양한 특징을 개관하고, 도시의 서비스 및 환경문제, 토지 및 주택 문제 등 광범위 한 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도서관련 마케팅 부분까지 언급하고 있다.